

임마누엘 징조

김용태(신대원 3년)

1. 서론

1.1. 논문을 쓰는 목적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임마누엘(Immanuel) 징조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논점들은 매우 심각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취급하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 그 예언이 선지자 당대의 일시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입장이 그 한 가지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성경 구조의 통일성과 내용의 초자연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었다.¹⁾

반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주석가들 사이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로 갈린다. 그 한 견해는 “이중언급설”(double reference theory)이며 다른 견해는 “단일언급설”(single reference theory)이다. 전자에 의하면 그 예언이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시대적 사건들과 여러 상황 곧 아하스와 이사야 당시의 시대에 일어났던

1. 이러한 입장은 S.R. Driver, *Isaiah Life and Times* (London: Nisbetand Co, 1888); Gray, *The Book of Isaiah* (New York: Scriber's Sons. 1912), vol. 1; Mowinckle, *He That Cometh* (New York: Abindon, 1954); Mouchline, *Isaiah 1-39* (New York: McMillan, 1962) 등에 나타난다.

제 사건들과 관계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곧바로 직접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²⁾ 후자의 입장은 종교 개혁 이후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일찍이 칼빈(J. Calvin)은 이사야 7장의 기독교적 해석을 주장하면서 이 견해를 나타내었다.³⁾ 이 주장은 기적적인 징조의 기대와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당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와 임마누엘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임마누엘)의 잉태로부터 예수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의 시간의 경과와 똑같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하스의 원수들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시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일언급설을 충분히 받아 들이면서도 이중언급설의 입장에서 단일언급설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임마누엘 징조가 분명히 신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구약 예언의 특징인 “가깝고 먼 성취”를 감안하여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랄하스바스가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임을 논증함과 동시에 알마(אלמָ)는 처녀를 포함하는 성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1.2. 논문의 전개 방법

이상의 논문 목적에 따라 내용을 논증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임마누엘 징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먼 성취요 궁극적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의 신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별히 임마누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12장까지의 문맥에서 임마누엘의 신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영감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마태가

2. 윌럼 헨드릭슨, 『마태복음 주석』 상권, 김만봉 역(서울:아가페 출판사, 1991), 208.
3. 존 칼빈, 『이사야 주석』 제1권,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92), 250.

확정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하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당대의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임을 구약 예언들의 특징에 비추어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증의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자연히 제기되는 문제인 알마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한다면 이미 아이를 낳았던 이사야의 아내가 과연 알마라는 용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마 논쟁을 사전적이고 성경적인 용법과 아울러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2. 먼 성취: 임마누엘의 신성

모티어(J.A. Motyer)는 유다에 대한 예언(사 7:1-9:7)과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사 9:8-11:16) 사이에 아주 비슷한 병행구절들을 찾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병행구절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징조를 보이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단의 순간을 내포하고 있다(사 7:1-17; 사 9:8-10:4). 또한 이 병행구절들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심판의 때(사 7:18-8:8; 사 10:5-15),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 8:9-22; 사 10:16-34), 그리고 다윗 왕국이 다시 서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줌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영광된 소망의 언약(사 9:1-7; 사 11:1-16) 등을 내포하고 있다.⁴⁾ 만일 이러한 이중 구조의 주장이 옳다면 이사야 7:1-9:7은 한 단위로써 읽어야 한다. 즉 사 7:14은 독립된 구절로

4. J.A. Motyer, "Context and Content in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7:14", *Tyndale Bulletin* 21 (1970), 118-125.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사야 7:1-9:7 사이의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⁵⁾ 따라서 이사야 7:1-9:7을 중심으로 임마누엘과 관련된 구절들을 선택하여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 단어와 문장의 해석, 신학적인 관찰까지 결합하여 해석함으로써 임마누엘의 신성을 논하고자 한다.

2.1.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2.1.1. 사 7장의 역사적 배경

아하스의 부친 요담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복속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주전 735년 앗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시도하였다. 그때의 애굽은 호세아의 말이 암시해 주듯이 힘을 약간 신장시킨 듯하다(호 7:11; 8:13; 9:3; 11:5, 11; 12:1). 유다는 이 반란에 가담치 아니 하였다. 그때 요담의 부친 웃시야는 다소 강력한 힘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대하 26:5 이하).⁶⁾ 그때 요담은 자기 부친의 독립 정책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제적인 혼란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공동으로 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왕하 15:37). 역대기만이 보도하는 큰 패배(대하 28장)는 요담왕 때 있었던 공격의 결과였을 것이다. 유다는 12만의 군사를 상실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그 성만큼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 제자 북쪽 왕들이 유다를 침입해 왔으며 그 목적도 첫번의 것과 유사하다. 이 두 음모자의 위협은 다윗의 위를 무너뜨리고 대신 그들이 선택한 다브엘의 아들(사 7:6)을 그 위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따

5. 프랭크 E. 개블린 & 제임스 D. 드글라스 편저, 『엑스포지터스 성경연구 주석』 (서울:기독교서회, 1982), 115.

6. H.C. 류폴드, 『반즈성경주석 이사야서』 상권, 최종대 역(서울:크리스찬서적, 1988), 154.

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러한 음모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리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그에게 보호의 징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하스는 경건한 변명을 가장하여 거짓 겸손으로 여호와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였다.⁷⁾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노를 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아하스와 다윗의 집에 주신 것이다.

2.1.2. 사 7장의 임마누엘 징조의 의미

구약에서 징조(מִטְּוָה)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억나게 하는 가시적인 표시였으며, 또한 어떤 사건의 진행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어지기도 하였다.⁸⁾ 델리취(F. Delitzsch)는 이러한 사전적인 징조의 의미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제시한다. 징조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의 서약에 공헌하는 어떤 물건, 어떤 발생 사건이나 어떤 동작이다. 이것은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수행되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주어지거나(출 4:8, 9) 미래 사건들을 지명하는 상징들로 여겨지거나(사 8:18; 사 20:3), 때때로 기적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예견된 예언적 사건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다른 사건들의 신적 동기를 회고해 본다거나(출 3:12) 또는 그것들의 확실성을 관망하는 한 증거가 되었다.⁹⁾

이러한 일반적인 징조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문맥은 아하스에게 어떤 이적적인 징조를 요구하도록 권하는 것 같다. 11절을 살펴보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떠한 이적적인 징조

든지 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 하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상 아하스에게는 과대한 것이었다. 아하스의 신앙의 허약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께서 이 점을 잘 아셨다. 따라서 아하스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적적인 징조를 왕이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¹⁰⁾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요청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보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간구에 대한 응답의 증거로 일영표가 15도 뒤로 가는 이적적인 징조를 요청했던 것 같이, 아하스는 자신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더 큰 징조를 구할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앗수르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יְהוָה אִמָּנוּ) 징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습”과 “마헬살랄하스바스”를 징조로 삼은 것에서 보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징조가 반드시 이적적인 것만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마누엘 징조가 반드시 초자연적인 징조여야 한다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의 성격이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일반적인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류폴드(H.C. Leupold)는 이러한 양면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록 그 징조의 전반적인 의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만 해도 이런 상황하에서 아하스에게는 위협을 주는 것이다.¹¹⁾ 먼저 이 예언은 징계의 뜻을 담고 있다. 아하스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린다는 징조이다. 앞으로 그들이 믿던 바로 그 앗수르 군대가 유대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다(사 7:15 이하).

7. 윌럼 헨드릭슨, 『마태복음 주석』 상권, 209.

8. 아가페 성경사전 편찬위원회 편역,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아가페출판사, 1991), 167.

9. G.F. 카일 & F. 델리취, 『구약주석 이사야서』 상권, 최성도 역(서울:기독교문화사, 1987), 227.

10. H.C. 류폴드, 163.

11. H.C. 류폴드, 164.

이것은 이사야 36장에서 산헤립의 침입으로 성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아하스만이 아닌 다윗의 집에도 주는 것으로써, 아하스의 육적인 자손인 다윗의 왕위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왕위가 앞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임마누엘로 대치될 것이라는 징조이다.

또한 이 예언은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징조로 이것을 주고 있다. 이 약속은 이사야가 아하스왕을 만나러 갈 때에 스알야숨(שאל־יָשׁוּם, שָׁאֵל) - “나머지가 돌아올 것이다”을 데리고 감으로써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를 제공한다.¹²⁾

2.1.3. 사 7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신성

우리는 이 구절에서 메시아의 신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징조로 탄생된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עִמָּנוּאֵל)이라 불리워 진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하셨던 언약 곧 그의 자손이 영원하리라는 언약의 성취의 결과를 볼 수 있다.¹³⁾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는데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그의 역할의 특성을 잘 말해준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역시 단순히 불리워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과 사역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그의 인격과 사역을 잘 파악

12. 한정진, 『성경과 신학』 제11권,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신성”(서울:기독교지혜사, 1992), 50-51.

13. 월터 카이저, 『구약성경신학』, 최중진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82), 285.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탄생 징조의 일차적인 초점은 그 어머니의 상태나 기적으로 인한 잉태에 있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과 생애에 있기 때문이다.¹⁴⁾

먼저, 그의 이름은 그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동일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곧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임마누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이사야 7:14은 실질적인 아이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상징적인 출생으로 본다.¹⁵⁾ 이러한 견해는 15절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아이의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도외시한 것이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격을 포용하고 있다.¹⁶⁾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입장에서 마태복음의 인용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마태의 복음 선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하는것, 곧 역사의 기원과 유래를 말하는 족보로부터 시작된다.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역사의 기원과 유래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을 능가하는 임마누엘임을 역설할 목적으로 예수의 처녀 탄생을 복음의 시발점으로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언자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예언을 예수 탄생의 성취로 확정지었다.¹⁷⁾

둘째로, 그의 신성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14. C. 라이트, 『성경연구주석 잠언-이사야 39』 (서울:성서유니온), 84.

15. E.E. Hindeson, *Isaiah's Immanuel*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Phillipsburg; New Jersey, 1978), 48.

16. J.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Zondervan, 1953), 185.

17. 이병렬, 『복음선포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말씀들』 (서울:요단출판사, 1991), 18.

점이다. 기독교의 최대 이적 사건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근본 초월자이신 하나님 곧 제 2위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사 택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구속주로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¹⁸⁾ 남자와는 상관없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아이의 탄생에서 인간의 개입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동정녀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증해 주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해 주고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임마누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됨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신성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2.2. 이사야 8장의 임마누엘

2.2.1. 사 8장의 역사적 배경

이사야 8장의 임마누엘을 언급하는 단락은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 역사의 참주권을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교훈한 앞 단락 1-4절에 이어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6절) 같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7절) 곧 무조건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제국 앗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5-8절, 14절, 15절). 그러나 이러한 심판 경고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들의 손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8절 b)의 약속으로 위로를 주신다(9-13절

18. 『그랜드종합주석』 제13권(서울:요단출판사, 1992), 39.

).¹⁹⁾

이사야의 예언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황폐에 대하여 말한다. 예언의 구절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급하게 범람하는 유브라데 강을 대조시키는 시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²⁰⁾ 에브라임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 것 때문이다(사 8:6). 실로아에 대해 요세퍼스는 우리가 요즘도 찾을 수 있는 고대 도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티로포온(Tyropoen)의 입구에 있는 실로아의 샘과 연못으로 생각된다. 그 맑고 아주 작은 시냇물은 모리아의 남서쪽 구릉과 시온산의 남동쪽 경사진 구릉 사이에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아주 보기에 즐거운 광경이다. 유프라테스 강물의 범람에 비유되는 제국 혹은 세계의 왕국과 대조되어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즉위한 다윗의 왕국의 상징으로 이곳이 사용되었다.²¹⁾ 여하튼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성과 관계된 것만은 사실이다. 즉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베가와 르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하수의 물을 범람시켜(앗수르의 침입) 그들 위를 덮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앗수르의 침입은 이스라엘 왕국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유브라데의 물결은 북쪽의 모든 골을 차고 언덕을 넘어서 유다까지 넘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7절 b). 즉, 유다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긴 상태가 될 것이다. 실로아 물을 무시하는 데 대한 책망은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포함된다. 후자는 그것이 앗수르를 신뢰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며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여 다윗의 집이 어떤 확실한 도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타락했고 허물어

19. 『그랜드 종합주석』 제9권, 730.

20. R.E. Clements, *Isaiah 1-39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ardmans, 1980), 96.

21. G.F. 카일 & F. 델리취, 『구약주석 이사야서』 상권, 248.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근거로써 확실하게 약속되어 졌고 침묵과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깨달아져 왔다.²²⁾

2.2.2. 사 8장의 임마누엘 비유의 의미

앗수르가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한 후 유다 전역을 거의 휩쓸어 목에까지 찬 지경이 되었다. 이때에 이사야는 극적인 묘사를 한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8절 b). 에브라임은 강에 의해 물밑에 완전하게 놓여질 것이며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앞으로 쏟아져 나옴으로 해서 가장 위험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한 구원자가 발견될 수만 있었다면 그때까지 구원의 가능성은 있게 된다. 모든 앗수르인의 재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의 빛 안에서 선지자가 본 그런 구세주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예언자는 세상 권력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삼켜지는 그의 땅에 대해 임마누엘에게 불평스럽게 호소한다.²³⁾ 8절 b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분명히 이 구절은 강물의 비유를 버리고 이를 새의 비유로 대치 시킨다. 그러나 이 새가 날개를 펼치고 땅에 내려 앉은 이유가 약탈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보호하기 위함인가 하는 물음은 분명하게 판단될 수 없다.²⁴⁾ 본문의 내용은 임마누엘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어 온 유다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인지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유다땅을 보호하신다는 말인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여기에는 남유다의 심판과 보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패역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시되 앗수르의 무자비한 침략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그의 날개로 보호하시겠다는 예언의

22. G.F. 카일 & F. 델리취, 248.

23. G.C. 카일 & F. 델리취, 249.

24. 오토 카이저, 『구세성서주석 이사야서』 상권, 번역실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4), 159.

말씀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문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패역한 남유다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²⁵⁾

그런데 칼빈은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의 언급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 부끄러움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 대신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 이름을 덧붙이는 목적이 선한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것처럼 큰 재난 중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황폐하고 비참하게 찢겨졌을 때 그들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 황폐가 구세주의 오심을 막지는 못할 것이며 그 분에 대해서는 그가 이전에 말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그 안에서 당신은 거주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록 그 땅이 찢기고 황폐하였다 하더라도 그 땅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위로의 말 대신에 첨가한 것이다. 직접적인 부름의 갑작스런 변화는 강조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는 주께서 무서운 재난을 제한한다는 구출에 대한 그의 믿음을 엄숙하게 밝힌다.²⁶⁾

또한 사 8:10의 임마누엘은 칭호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파괴를 획책하는 자들이 도모할 모든 시도가 허사로 끝날 이 극적인 패배에 대한 설명적 대답이다.²⁷⁾ 학자들은 이 짙막한 승리의 노래를 항상 현재의 문맥으로부터 떼어 내어 이 짙막한

25. 『그랜드 종합주석』 제 9권, 731.

26.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이사야서』 제1권, 274.

27. H.C. 류폴드, 181.

문맥이 지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승리의 노래는 유다에 대한 5-8절의 위협의 말과 어렵지 않게 연결될 수도 있고 11-15절에 나오는 예언자의 신앙고백과 연결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위협하는 말과 연결시켜 읽는다면 이 노래는 장차 일어날 앗시리아의 공격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소기의 목표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현재의 적인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소기의 목표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8절 a는 실제의 멸망을 고지하지 않고 큰 위협을 고지하기 때문에 내용상 두 단락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듯 보인다.²⁸⁾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을 분리해 놓는다. 패망의 선언을 그들 위에 내리고 먼 나라 백성들에게 세상 왕국은 임마누엘의 땅에서 분노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와 함께”는 믿는 자의 경어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구세주의 백성임을 지칭하는 것이다.²⁹⁾ 칼빈(J. Calvin)도 역시 이미 수세기 전에 델리취(F. Delitzsch)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로서는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중보자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중보자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³⁰⁾

2.2.3. 사 8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신성

이사야 8장 이후의 내용들은 앞 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¹⁾ 주

28. 오토 카이저, 160.

29. G.F. 카일 & F. 델리취, 250-251.

30.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이사야서』 제1권, 279.

31. 존 A. 마틴, 『이사야 강해주석』, 김동건 역 (서울:두란노서원, 1988), 57.

목해야 할 바는 이사야 7:3-9 부분은 다소 신비롭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유다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려 했다면, 그것은 8장이 현재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 두 장의 자료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³²⁾ 이사야 8장 임마누엘과 관련된 문맥은 앗수르 왕이 독을 넘어 흐르는 물처럼 북왕국을 쓸어버리고 이 “홍수” 즉 앗수르가 유다까지 흘러 넘칠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전 701년과 그 이후에 산헤립의 침입으로 확인되었다. 범람 상태의 시내에 견주어 묘사된 유다의 약탈은 유브라테강의 범람한 물이 흘러 유다로 들어오고 거기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람은 유브라테강의 표상뿐만 아니라 굉장이 큰 날개를 펼치고 “그 땅”³³⁾ 곧 임마누엘의 땅을 완전히 덮어 캄캄케 만드는 큰 세의 표상도 나타난다. 그러나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여기서 선지자가 자기의 강화(discourse)를 임마누엘(그 도래는 사 7:14에서 이미 예고 되었다)에게 향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 신비로운 임마누엘이 전 이스라엘 땅의 주라는 첨가적 사실이 나타난다. 비록 그는 신적이고 온 땅의 주라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해도 이와 같은 사고들이 암시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 위기에서 그 땅과 백성들을 구원할 가능성도 암시되었다.³⁴⁾ 사 8:8의 임마누엘은 먼 훗날에 있을 메시아의 탄생과 무관한 이사야 당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당대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약속의 성취가 초자연적으로 이루

32. H.C. 류폴드, 178.

33. 여기서 ‘임마누엘’은 ‘너의 땅’이라는 말에 이어 나타난다. 여기서의 ‘너’를 이사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서는 바로 뒤에 호격으로 나오는 ‘임마누엘’과 동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lexander는 ‘너’를 이사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이사야를 가르켜 ‘너’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과 일치할 수 있는냐고 지적한다.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6, 188.)

34. H.C. 류폴드, 60.

어졌다는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신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임마누엘” 메시야는 신적인 존재로서 이미 이사야 시대에서 부터 유다를 보호하고 있었으며(사 8:6)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분이시다(사 7:14).³⁵⁾

2.3. 이사야 9장 임마누엘

2.3.1. 사 9장의 역사적 배경

이사야 8:19이하의 앞의 임마누엘 단원들과 확실히 구분되어 새로이 주제가 시작된다. 새로운 단원에서는 먼저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는다. 그들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점장자와 마술사들에게 찾아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또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지 아니한다(사 8:18, 19).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형편에 처할 것이다. 앗수르로 말미암아 환란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 흑암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사 8:22). 사 9:1은 이사야 8장 마지막 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³⁶⁾

이사야 8장 마지막 부분은 앗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흑암이 덮칠 것을 말하는데, 사 9:1이하의 이스라엘이 이 흑암에서부터 회복될 것을 말한다. 북왕국 자체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는 그의 비망록에 시리아, 에브라임 때 앗수르에 의해 부활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첨가하였다. 진노는 하나님의 길을 중국점

35. 한정건, 60.

36. 8장과 9장을 여기서 나누는 것이 좋지않다. 만약 장을 나누어서 다른 단원으로 시작한다면 9장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 9:1은 사 8:22과 비교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장의 실수는 사 10:34과 사 11:1을 나누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히브리본문(MT)은 영어 번역본들과 한글번역본들의 사 9:1을 이사야 8장 마지막에 붙여 8장을 23절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 본문은 이사야 9장에서 한 절씩 앞당겨져 있다.

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이다. 이방 민족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열 두 지파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억눌린 땅은 또다시 새로운 번영과 자유를 이루리라. 티그랏빌렛셀 3세는 734년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는 해안 지방을 분할하여 수도인 “도르”의 이름에 따라 명명된 “두루” 속주로 편입시켰다. 북부 지방과 동부 지방도 732년 같은 운명에 처했다. 이스라엘 평야와 갈릴레아는 므깃도를 수도로하는 “마기도” 속주가 되었고 요르단 건너편 지방은 “갈라주” 속주가 되었다. 이 지역들 곧 아마도 해안 지방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민족들의 지역”인 갈릴레아, “요르단 건너편”은 야훼에 의해 다시금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지역들은 다시금 가해진 민족의 결속체 안에 편입되리라는 것이다.³⁷⁾ 사 9:2이하의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한다. 이 회복은 군사적인 문턱으로 묘사된다. 주께서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을 불의 쇠같이 살라버릴 것이다(5절).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이 지운 명예를 벗길 것이다(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는 자와 같이 혹은 탈취물을 나누는 자와 같이 주앞에서 기뻐할 것이다(3절). 이러한 회복은 6절에 나타난 “한 아기”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진술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혹은 이름난 영웅이 아니라 단지 “어린 아이”와 “아들”이다. 여기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된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사 7:14절에서 도입된 임마누엘 사고때문이다.

2.3.2. 사 9장의 임마누엘의 내용

예언자가 이사야 7장에서 알마의 아들이 어지러운 시대에 성숙할 것이며 이미 정부를 점유했다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는 것을 본다. 거기에서 그는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은총의 선

37. 오토 카이저, 172-173.

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인간들처럼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신적으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다.³⁸⁾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언의 하나를 삽입시키기 위해 심판의 묘사를 중단한다. 흑암의 절망 속에서도 서광이 비칠 것이다(2절). “한 아기로 태어나고”(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킴) “주신바 된 한 아들”(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킴)인 자에게 위대한 소망이 집중된다.³⁹⁾ 여기서 이런 말들이 선택된 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사 7:14에서 도입된 임마누엘 사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본문은 이 사람이 아이로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아이로서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신적으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이 두 구절의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다. 미래형을 써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가상적인 예언을 주기보다는 완료형을 사용하여 어떤 정해진 때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아이에 대한 언급이라고 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⁴¹⁾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서처럼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어깨 위에 관직(사 22:22)과 신과 같은 장엄함(사 21:6)을 가지고 정부를 떠맡으리라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사실임이 추정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이 태어나게 될 아기가 영광스러운 성읍을 실현하리라는 영원한 통치의 신성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서 선언된 이대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자손과 연결이 되어온 것이다. 이사야 7장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38. G.F. 카일 & F. 델리취, 264.

39. L.O. Richards, 성경헨드북, 오태용 역 (서울: 여수론, 1988), 440-441.

40. H.C. 류폴드, 196.

41. J. Skinner,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ch. 1-39* (University Press, 1909), 75.

붙이는 사람은 어머니이나 여기서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인가 된다.⁴²⁾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포함하는 네 가지의 유명한 이름들이 붙여진다. 켈벨 몰간(G.C. Morgan)은 이 네 가지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기묘자요 묘사”는 사람이 그를 처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분이심을 나타낸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곧 이 세대에서도 여전히 알려지신다는 사실을, “평강의 왕”이란 그가 든든히 세워진 왕국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⁴³⁾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진 아이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한 평화와 정의의 통치를 하실 임마누엘이다. 그의 통치는 끝이 없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지상의 왕국을 뒤이어 그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2.3.3. 사 9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신성

이사야 9장의 임마누엘의 신성은 주어진 바 되고 나신 바 된 그 아이의 놀라운 이름에서 밝히 드러난다. 네 개의 유명한 이름이 병행법(parallelism)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 네 이름이 네 개의 복합어라는 점을 지적해 준다. 그 이유는 이 구원자의 독특한 고귀함이 가져올 수많은 축복을 표현할 수 없고 그가 성공적으로 성취하실 다양한 사역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목되어야 할 바는 “그의 이름이 ...라 불릴 것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이름”의 의미와 일치되어 그의 것이될 성격 유형을 뜻한다. 더 더구나 그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그 이름이 말하는 바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⁴⁴⁾ 그러므로 이 이름들은 불리워지기 위해 쓰여

42. G.F. 카일 & F. 델리취, 254-256.

43. G.C. 몰간, 『마태복음 강해』, 원광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2), 22.

44. H.C. 류폴드, 196-197.

졌다기보다 차라리 그 아이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⁴⁵⁾ 이 네 가지의 이름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붙여질 수 없는 초인간적인 명칭들이다. 따라서 이 이름들의 대상자들은 메시아 외에 달리 생각될 수 없다. 텔리취(F. Delitzsch)는 “주신 아기”를 동정녀의 아들과 동일하게 본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며, 예를들어 사 7:14과 같은 구절이 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⁴⁶⁾

그의 첫째 칭호인 “기묘한 묘사”(Wonderful-Counselor)⁴⁷⁾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위대한 일-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일-을 그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적절한 계획을 가졌다.⁴⁸⁾ 메시아에게 사용된 “wonder”는 “아름답다”는 수식 어구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바로 그 능력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가 “Counselor”로서의 역할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날 것이며, 위의 두 단어는 이사야 28장 29절에서 바로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다. 첫째 칭호와 둘째 칭호(전능하신 하나님)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논의 중인 그가 이 훌륭한 계획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수행할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 아이의 신적 성격이 여기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이사야는 동일한 칭호를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나타난다.⁴⁹⁾ 신들에게 El Gibbor로 사용되는 경우는

45. J.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203.

46. E.E. Hindson, 59.

47. 히브리어 단어의 배열상 “묘사의 기묘”(a wonder of a counsellor) 혹은 “기묘한 묘사”(a wonderful counsellor)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배열상 앞의 단어가 연계형의 역할을 하므로 여기서의 번역은 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48. H.C. 류폴드, 197.

성경뿐만 아니라 우가랏 문서들에도 나타난다. 우가랏 문서에서는 신과 사람을 서로 교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승화시킨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도 사람을 신격화한 적이 없으며, 성경에서 El이 한번도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아이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그 자신임을 나타낸다.⁵⁰⁾

그 다음의 칭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로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강조점이 그의 영원한 존속에 있지 않고 그가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놓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 대하여 가지신 그 인자하고 따뜻한 부모 같은 사랑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구약에서 “부”(father) 개념과 연관되는 사고는 시 103:13에 언급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이다. 이 세째 칭호는 그가 확정하시는 바 일에서 자기 피조물에 대해 가지시는 깊고 인자하신 사랑, 다시 말해 그가 하시는 그 안에서 가지시는 정신과 태도를 말해준다.⁵¹⁾

이 성격 묘사의 결론은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로 되어졌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묘사되어지는 전쟁들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왕국을 정착시킬 왕이시다. 특히 이사야 8장 마지막 부분의 절들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⁵²⁾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가 구속받은 백성을 자기에게 모은 후 그는 왕으로 저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자기 일을 수행하신 방법은 평화적인 것이었다. 그가 다스

49. H.C. 류폴드, 197.

50. 한정건, 67.

51. H.C. 류폴드, 198.

52. 한정건, 69.

리는 그 백성은 평화의 사람들이다. 그가 자기 일을 수행하시는 원리는 모든 평화이다. 사실 그를 통하여 평화라는 말이 물리적인 함축뿐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에서 훨씬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⁵³⁾

지금까지 임마누엘 징조를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9장까지를 한 문맥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배경과 해당 구절들의 주경적, 신학적 해석을 곁하여 임마누엘의 신성을 밝혔다. 아울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타난 메시아 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았다. 켈벨 몰간(G.C. Morgan)의 말처럼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것으로서, 순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상황 위에 번쩍 스치고 지나간 섬광과도 같은 것이다.⁵⁴⁾ 하지만 서서히 듣는 해처럼 임마누엘의 윤곽이 이사야 8-9장에 이르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9장에 이르는 각 장들의 상황과 문맥에 관련하여 바론(D. Baron)은 이제 더 이상 이사야 7장 14에서와 같이 정체불명의 임마누엘이 모호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의 육체적 탄생, 다윗의 왕위, 모든 민족들에 이르는 그의 통치, 이 통치의 평화로운 성격, 그것의 지속성을 알게 되었다.⁵⁵⁾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가 곧 “처녀”의 몸에서 나실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다.⁵⁶⁾

3. 가까운 성취: 마헬살랄하스바스

53. H.C. 류폴드, 198.

54. G.C. Morgan, 19-20.

55. D. Baron, *Rays of Messiah's Glory* (Grand Rapids: Zondervan.n.d), 32.

56. E.E. Hindson, 62.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입장은 성경의 영감과 통일성을 믿기에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징조를 마태가 주장한대로(기록한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성에 대해 논증해 왔으며, 임마누엘의 신성을 증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7장 15-16절과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이사야의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나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것이라면 16절에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고 한 예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일성취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4절에서 16절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 (나의 예언적인 눈 앞에 이미 이르러 있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곧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고조된 어투로 예언적 환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⁷⁾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징조가 아하스 왕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다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곧 가깝고 먼 성취를 말하는 구약 예언의 한 특성에 비추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구약 예언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준하여 마헬살랄하스바스(מַחֵלְשָׁלֹחַ הַשֶּׁבַס)가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임을 밝히고자 한다.

57. 윌럼 헨드릭슨, 『마태복음 주석』 상권, 215.

3.1. 가깝고 먼 임마누엘의 성취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이 계시는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설명하며 미래를 밝히는 일에 기여한다. 예언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에 그 관심사를 두거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사에 중심점을 둔다. 선지자의 꿈, 이상, 내적인 암시 또는 구두의 의사 전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단지 선포하거나 꿈이나 이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이 수반된다.⁵⁸⁾ 이러한 정의를 지니고 있는 예언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언적 조망”과 “가깝고 먼 성취”가 그것들이다. 예언적 조망은 예언자의 관점을 말한다. 말하자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 멀리를 내다보는 것이다. 그의 체험은 마치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 그는 여러 개의 산 봉우리들을 보게 되는데 그 봉우리들이 마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여러 봉우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예언자들도 두 개의 큰 봉우리들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또는 고난과 승리를 보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치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고 함께 이야기 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시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사야 61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잘 확인된다.⁵⁹⁾

예언의 또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은 가깝고 먼 성취이다. 예언의 많은

58. 루이 벨코프, 『성경해석학』, 윤종호 외 1명 공역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 1991), 174.

59. 노튼 스테랫, 『성경해석의 원리』, 한국성서유니온 편집실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5), 129.

부분은 예언하는 때에서 가까운 때의 사건을 일차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님이심으로 이 예언이 또한 나중에 가서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성취는 나중에 완성될 예언의 표징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예를 보면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약속을 주셨다. 이 예언은 말할 것도 없이 왕위에 있는 다윗을 계승할 솔로몬에 대한 것이다. 더욱이 14절하반부 같은 것은 솔로몬에게 한정된 것이다. 한편 히브리서 1장 절 하반절에서는 14절의 상반부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며 솔로몬은 그의 예표이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엄청난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다.⁶⁰⁾

이러한 예언의 전망과 가깝고 먼 성취의 구약 예언의 특성을 감안하고 임마누엘 징조를 이해할 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이 임마누엘 징조와 그 성취로서의 마태복음 1장 23절과의 시간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단일성취설 혹은 단일언급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괴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고조된 어투를 예언적 환상의 말로 읽을 때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⁶¹⁾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임마누엘 예언은 이해하는 것은 “예언적 전망”이라는 예언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즉 선지자들은 중요한 사건들을 짧은 시간이라는 공간으로 압축시킨다. 그리고 중대한 운동을 현재적 의미로 밀접하게 집약을 시키고 그것을 한눈에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적 전망”(the prophetic perspective)이라고 칭하는 것을 델리취(F. Delitzsch)는 “선지자의 시계에 들어온 단축법”(the foresch-

ortening of the prophete's horizon)이라고 부른다.⁶²⁾ 단일언급설의 학자들

60. 노튼 스테랫, 130.

61. 윌럼 헨드릭슨, 215.

은 이러한 예언적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시간적 괴리 현상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임마누엘은 “시간 측정기”(chronometer)⁶³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측정의 역할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측정을 해주는 실제적인 아이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단일언급설의 주장대로라면 임마누엘 징조는 아하스 왕에게는 단지 조만간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땅이 패한 바 된다는 정보만을 제공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7절에서 언급한 예언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책은 “예언적 전망”뿐만 아니라 “가깝고 먼 성취”라는 예언의 두 특성에 비추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두 장면의 필름이 겹쳐져서 마치 한 장의 필름으로 한 장면만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장면의 필름은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과 먼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다. 물론 먼 성취이자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본다. 이사야의 임마누엘 징조는 아하스와 다윗의 집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임마누엘 징조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임마누엘의 예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임마누엘 징조의 특징에 대해 켐벨 폴간(G. C. Morgan)은 “사7장의 임마누엘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인(incidental) 것이지만 우연적인(accidental)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것으로서, 순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의 상황 위에 번쩍 스치고 지나간 섬광과도 같은 것이다.”고 그의 마태복음 강해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⁶⁴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적 시각에는 700여 년이라는 시간적인 괴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 장면이 동시에 겹쳐서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겹쳐진 장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시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의 징조의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이다. 물론 범위를 좀더 늘려 잡는다면 25절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이며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은 앞 절들에 대한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연 설명의 단락에 대하여 편집사학파는 후대의 가필자들에 의해 작성된 이차적인 작품으로 간주한다. 후대의 가필자는 이사야의 단편적인 위협의 말을 가운데 네 개의 단편들을 하나로 모으고, 해석적인 첨가문을 덧붙여 17절에 고지된 왕과 백성에게 내린 심판을 묘사한다는 것이다.⁶⁵ 하지만 우리는 이 단락이 이사야의 원래적 요소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편집사학파의 주장은 단지 저들의 전체에 의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 언어학적이고 내용적인 통일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적 두 특성을 전제로 하여 임마누엘 징조의 핵심 내용인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두 장면의 필름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름의 뒷 장면인 먼 성취로서의 임마누엘 징조는 마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정하고 있듯이 이사야 7장 14절 곧 “알마(אֵלְמָ)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뒷 장면의 필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필름의 앞 장면은 이사야 7장 14절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한 15절에서 17절을 포함

62. 루이 벌코프, 175.

63. H.C. 류폴드에 의하면, 시간측정기(chronometer)란 임마누엘 아이의 한 역할로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시기를 지시해준다는 의미이다(H.C. 류폴드, 166).

64. 켐벨 폴간, 19-20.

65. 오토 카이저, 151.

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겹쳐진 두 장면의 필름을 아하스에게 동시에 징조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첫 장면의 임마누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사야 7장에 바로 뒤를 이어 8장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랄하스바스임을 주장한다.

3.2. 마헬살랄하스바스가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인 증거

3장 1항에서는 예언의 두 특성을 전제로 하여 임마누엘 징조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누구인가 하는 데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가까운 성취라고 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가깝고 먼 성취로서의 예언의 특성상 먼 성취는 궁극적 성취요 가까운 성취는 먼 성취 곧 나중에 완성된 예언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 것이다.⁶⁶⁾

임마누엘 징조에서 문제는 이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누가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누구냐에 대해 구구한 학설들이 있다. 이사야의 세번째의 아들이라는 설, 아하스왕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당대에 태어날 모든 아이들이라는 설 등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설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이러한 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단순히 그 당대에만 해당한다는 모든 설이다. 예를 들면 오토 카이저(O. Kaiser) 같은 경우 임마누엘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석하는데,⁶⁷⁾ 이는 사도의 전통을 받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릴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오류로 판명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중성취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연대기적 문제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열왕기하 16장 2절과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16년간 다스리고 난 후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

랐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줄 때인 733년 경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이미 16세 내지 17세였다. 따라서 문제의 아이는 히스기야가 될 수 없는 것이다.⁶⁸⁾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의 제3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자들도 있으나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을 단순히 추측만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요 궁극적 성취인 임마누엘의 예표로서의 임마누엘이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주장한다. 임마누엘 징조의 주목적의 하나는 일종의 시간측정기(chronometor)의 역할인데,⁶⁹⁾ 마헬살랄하스바스가 동일하게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포함해서 14절에서 17절도 한 문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아이는 실제적이며 필수적이다. 이 아이가 지각을 가지고 자라기 전에 당시의 유다를 둘러싼 전체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아하스의 두 미워하는 왕, 곧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패한바 되리라고 한다(사7:16). 마헬살랄하스바스의 태어남과 관련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임마누엘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사8:4). 따라서 이 두 아이의 탄생과 성장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이 두 아이의 역할인 시간측정기로서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은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아이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했으며 이사야 8장 4절에 나타난 마헬살랄하스바스 아이가 “네 엄마 아빠라고 할 줄 알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아이의 나이에 대한 이러한 관용적 어구들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자는 분

66. 노튼 스테렛, 159.

67. 오토 카이저, 146.

68. 오토 카이저, 145.

69. H.C. 류폴드, 166.

명히 한두 살의 나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전자의 아이에 대한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의 나이는 과연 한두 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이 관용어구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칼빈(J. Calvin)과 같은 경우 이사야 7장 15절의 아이와 이사야 7장 16절의 아이를 구분하여 사 7:14, 15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사 7:16은 당대의 일반 모든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철든 나이가 될 때”라고 주장한다.⁷⁰⁾ 벨리취(F. Delitzsch)도 이와 비슷한 나이로 추정하는데 그 아이가 “채 성숙하기 전”이라고 그의 주석에서 말한다.⁷¹⁾ 오토 카이저(O. Kaiser)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의 나이를 제시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의식적인 선택의 자유가 완성될 때, 곧 20세 정도 일 것이라고 주장한다.⁷²⁾

하지만 류폴드(H.C. Leupold) 같은 학자는 약 3세를 가리킨다고 한다. “바로 앞에 언급된 말이 그 아이가 윤리적 지각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지 아니면 선과 악 사이의 신체적 판별력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이 14세 정도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약 3세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둘 중 후자가 옳은 듯하다. 왜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⁷³⁾ 이상에서 고려해 볼 때 이 아이의 나이는 14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의 나이를 지칭할 수도 있으며, 약 3세 정도의 나이 곧 신체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아이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함으로 마헬살랄하스바스의 나이를 표현하는 관용어구가 임마누엘의 나이를 표현하는 관용어구와 같은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하나의 관용어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이 두 아이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70. 존 칼빈, 『이사야 주석』 제1권, 254-255.

71. C.F. Keil & F. Delitzsch, 237.

72. 오토 카이저, 147.

73. H.C. 류폴드, 168.

논리이다. 임마누엘의 궁극적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실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실제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다. 이것이 마헬살랄하스바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또 다른 증거는 사 8:8에 이사야가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 스알야습과 마헬살랄하스바스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마헬살랄하스바스 역시 징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약 예언의 두 특징인 “예언적 조망”과 “가깝고 먼 성취”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징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징조가 두 장의 필름을 겹친 것과 같은 특징을 지녔음을 밝혔다. 따라서 먼 성취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가까운 성취로는 마헬살랄하스바스임을 논증했다.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로 마헬살랄하스바스를 지목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징조를 이 두 아이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 가깝고 먼 성취의 부산물: 알마의 문제

3장에서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논증했는데 이상의 모든 논쟁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사 7:14의 알마에 대해 마태는 분명히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적용시키고 있으며 이 징조의 알마(7272)를 70인역에 근거하여 파르테노스(παρθενος : 처녀)라고 번역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의 아내가 마헬살랄하스바스를 낳기 전에 스알야습이라는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둔 여인으로 마태가 번역 인용한 파르테노스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므로 3장에서 가까운 성취인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버린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알마 논쟁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조화시키려는데 그 초점을 두고 논증하고자

한다.

4.1. 알마의 용법

알마라는 말은 구약에서 모두 8회 나타나는데 단수 형태로 4번 나오며 복수 형태로 5번 나온다.⁷⁴⁾ 시 28:25에 나오는 것은 개역성경에서 “소고치는 동녀”로 번역되어 있다. 이 구절은 알마가 비교되는 것이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한 여인인지 처녀인지를 확정지을 근거가 없다. 시 46:1과 역상 15:20에 사용되는 “노래하는 여인들”도 결정지을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아 1:3-4에서 알모트(Almoth)는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와 대조하여 복수형으로 나타나며 아 6:8은 60명의 왕비와 80명의 첩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알모트와 비교되고 있는데 모두 처녀로 국한된다기보다는 단순히 “하녀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창 24:16에서는 알마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창 24:16에서는 그 처녀에 대해 베틀라(בֵּתְלָא: 처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저자에 의해 별다른 구별없이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잠 30:19, 20에 언급되는 알마도 논란이 많다. 영(E.J. Young)은 여기에 나타나는 알마는 악한 소녀를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⁷⁵⁾ 또한 알마와 관련된 이 구절은 “순결한 처녀가 한 남자와 데이트하는 광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⁷⁶⁾ 하지만 18절에서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녘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와 아울러 남녀의 함께한 자취 등 4가지의 자취를 말하고 이어서 음녀의 자취를 언급한다. 이것은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녘”이라고 했듯이 또

다른 다섯 번째의 자취를 말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번째 자취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에 대해 부가적이고 강조적으로 따라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자취는 밀접하게 연결된 한 단위로 취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녀의 자취가 단순히 남녀의 데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의미하듯이 남녀의 함께 한 자취는 비록 그것이 부도덕한 성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남녀의 성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19절의 남녀와 함께한 자취에서 사용된 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처녀를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이외에도 알마가 단순히 처녀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사야서 안에서 꼭 처녀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곳에는 베틀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3:4, 12; 37:22; 47:1; 62:5). 이 구절들은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한 다음에 그 나라들이 예전에는 정복되지 않았던 처녀로 비유될 때 사용되었다. 둘째로,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베틀라가 처녀로, 알마가 성숙한 여인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70인역에서 알마가 동정녀로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창24:43과 사 7:14을 제외하고는 모두 네아니스(*νεανις*: 젊은 여인)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처녀의 의미로 사용되는 베틀라가 동정녀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구절로 신 22:19와 솔 1:8을 제시한다. 신 22:13-21에서는 처녀성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다.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처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처녀성에 대한 의문이나 모함으로 송사된, 결혼 첫날밤을 지난 여자에 대해 유보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처녀를 언급하고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결코 기계적인 정확한 구분에 근거하여 처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문맥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처녀의 의

74. 단수(Almah): 창 24:43, 출 2:8, 잠 30:19, 사 7:14; 복수(Almoth): 시 63:26, 아 1:3, 아 6:8, 역상 15:20.

75. E.J. Young, *Studies in Isaiah*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54), 176.

76. E.E. Hindson, 78.

미로 사용된 브틀라가 동정녀라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브틀라가 동정녀라는 의미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율1:8절이 제시된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 애곡”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될 자를 잃어 버림을 인한 고통을 극도의 억울함과 슬픈 일에 대한 비유로써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처녀가 단순히 약혼했기에 처녀성을 상실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비록 정혼한 몸이지만 처녀였다. 본문은 극도의 고통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다면 오히려 단순히 약혼만하고 한번 살아 보지도 못하고(모든 결혼의 행복을 한번 누리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더 극적인 고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브틀라가 동정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성경에서의 알마의 용법이 확정적으로 처녀임을 증명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일반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알마에 대한 개념인 처녀성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성숙한 여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녀성을 강조하는 단어는 “알마”보다는 오히려 “브틀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2. 사 7:14의 알마와 마 1:23의 파르테노스

4장 1항의 결론에 따라 알마가 처녀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성숙한 여인을 가리킨다고 할 때 영감받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를 처녀로 확정된 것과 모순이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의 알마는 처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진전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정녀 탄생의 역사가 마태의 시대에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태도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 진전의 역사에 근거하여 확정적으로 알마를 처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이름을 짓는 자를 3인칭 복수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MT에서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짓는 자가 2인칭 단수로 임마누엘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알마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처녀로 확정하여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신학적인 고려없이 단순히 인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마태가 자각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영감아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의 결과에 따라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는 이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이사야의 아내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알마에 대해서 성경적인 용례를 하나씩 점검해 본 결과 알마가 처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인 성숙한 여인에 더 가까움을 논증했으며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가 마태복음에서 파르테노스로 번역 인용된 것은 알마가 동정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써 가까운 성취로서 마할살랄하스바스의 어머니인 이사야의 아내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전의 역사에 따라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창 3:15)가 알마의 아들인 임마누엘로 예언되었고(사 7:14) 동정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했다(마 1:23).

5. 결론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간의

시간적인 괴리를 해결해 보고자 본 논문을 전개해 왔다. 우리는 결코 영감받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9장에 이르는 한 문맥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신성을 밝히므로 마태가 확정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예언의 두 큰 특징인 “예언적 조망”과 “가깝고 먼 성취”라는 입장에서 단일 성취설에서는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당대의 정치 상황과 임마누엘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간의 7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겹쳐진 두 장의 필름인 가깝고 먼 성취를 동시에 보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로 아하스 왕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뒷 장의 필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며 앞 장의 필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포함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을 포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은 바로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랄하스바스임을 논증했는데 그가 임마누엘 징조와 동일한 징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가까운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대의 임마누엘이 마헬살랄하스바스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태가 처녀로 번역 인용한 알마와 이사야의 아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알마 논쟁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알마의 용례가 처녀가 아니라 처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인 성숙한 여인임을 논증했다. 이와 아울러 마태가 알마를 처녀로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진전의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구속 계획이 밝히 드러남에 따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런 계시 진전의 관점에서 확정적으로 인용했음을 밝혔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징조의 알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동정녀 마

리아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에게도 적용됨을 밝혔다. 이로써 임마누엘의 징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일 성취가 아니라 이사야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이중적 성취임을 밝혔다.